속죄를 드리셔 보았습니까

주 4:5, 5:1, 30:2b/7 | 제 3 찬양 | 이선 목사

시편 51장 1절 | 주 4:5, 5:1, 30:2b/7 | 제 3 찬양 | 이선 목사

기도 말씀

"There is nothing finish without a man, that entering into him can define how the Christ-life things which come out of him, those are they that have the Christ-life in them." KSF — Week 4:13

"이방 백성이 그에게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념할 수 있어야 그에게 이르는 것은 여호와의 기념물이니 주의 기념물이니라." 주 4:5b

"This is something that arises from Jacob's experience. Jacob's experience of wrestling, that is something might be found with which to answer him. The Pharisees saw that the disciples of John and the disciples of Jesus were fasting, and they said, Why do your disciples not fast? Jesus said, "wedding of cups and pots, Yorain vessels, and of tables." Hoping to provoke a controversy, Jesus said, "Can you make the son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Can you make your bread with unleaven hands?" This thought is drawn from Christ words of which they could make capital. But he answered them with authority, while divinity was manifested through humanity. Jesus said, "Can you make the sons of the bridegroom fast? Can you make people honeymoon with their fast,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Involved in sin does not make people honeymoon with their fast." Jesus said, "Can you make people honeymoon with your fast? Can you make people honeymoon with your fast? Can you make people honeymoon with your fast?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니 무리가 몰려와서 병자와 절름발이를 데리고 와서 그 발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고, 이방인인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회복되고 절름발이가 걷고 장님이 보기 때문에 깜짝 놀라 예수를 찬양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제자들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고프게 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하기 말하기를 우리는 빵 일곱 개와 조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 15:29-36

8월 8일 목요일

Watch out for Bad Bread
나쁜 떡을 주의하라

Read Mark 8:11-13. What approach by the Pharisees deeply disappointed Jesus?

마가복음 8장 11-13절 읽어 보라.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깊이 실망 시켰는가?

"Now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Christ, asking for a sign from heaven. When in the days of Joshua Israel went out to battle with the Canaanites at Bethhoron, the sun had stood still at the leader's command until victory was gained; and many similar wonders had been manifest in their history. Some such sign was demanded of Jesus. But these signs were not what the Jews needed. No mere external evidence could benefit them. What they needed was not intellectual enlightenment, but spiritual renovation. DA 406.1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러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벧호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갔을 때,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승리를 거둘 때까지 태양이 멈춰 있었으며, 이 와 유사한 많은 기적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표적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게 필요한 것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혁신이었습니다. DA 406.1

"O ye hypocrites,' said Jesus, 'ye can discern the face of the sky,'—by studying the sky they could foretell the weather,—but can ye not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Christ's own words, spoken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convicted them of sin, were the sign that God had given for their salvation. And signs direct from heaven had been given to attest the mission of Christ. The song of the angels to the shepherds, the star that guided the wise men, the dove and the voice from heaven at His baptism, were witnesses for Him." DA 406.2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의 얼굴도 분별할 줄 알고 하늘을 연구하여 날씨도 예언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신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직접 표징이 주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노래,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 비둘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위한 증인이었습니다." DA 406.2

"Every miracle that Christ performed was a sign of His divinity. He was doing the very work that had been foretold of the Messiah; but to the Pharisees these works of mercy were a positive offense. The Jewish leaders looked with heartless indifference on human suffering. In many cases their selfishness and oppression had caused the affliction that Christ relieved. Thus His miracles were to them a reproach. DA 406.4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기적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자비의 행위는 공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무자비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이기심과 억압이 그리스도께서 구제하신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기적은 그들에게 모욕이었다. DA 406.4

"That which led the Jews to reject the Saviour's work was the highest evidence of His divine character.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His miracles is seen in the fact that they were for the benefit of humanity. The highest evidence that he came from God is that His life revealed the character of God. He did the works and spoke the words of God. Such a life is the greatest of all miracles." DA 406.5

"유대인들이 구세주의 사역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그분의 기적의 가장 큰 의미는 그 기적이 인류의 복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DA 406.5

"Those who desired a sign from Jesus had so hardened their hearts in unbelief that they did not discern in His character the likeness of God. They would not see that His mission was in fulfillment of the Scriptures. I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Jesus said to the Pharisees, 'If they hear not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persuaded, though one rose from the dead.' Luke 16:31. No sign that could be given in heaven or earth would benefit them." DA 407.2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마음이 강퍅해져서 그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사명이 성경을 성취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설득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31. 하늘과 땅에서 주어질 수 있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DA 407.2

Read Mark 8:14-21. What had the disciples forgotten, and what point did Jesus make from this?

마가복음 8:14-21을 읽어 보라. 제자들이 잊은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점을 가르치셨는가?

"The Jews had been accustomed since the days of Moses to put away leaven from their houses at the Passover season, and they had thus been taught to regard it as a type of sin. Yet the disciples failed to understand Jesus. In their sudden departure from Magdala they had forgotten to take bread, and they had with them only one loaf. To this circumstance they understood Christ to refer, warning them not to buy bread of a Pharisee or a Sadducee. Their lack of faith and spiritual insight had often led them to similar misconception of His words. Now Jesus reproved them for thinking that He who had fed thousands with a few fishes and barley loaves could in that solemn warning have referred merely to temporal food. There was danger that the crafty reasoning of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would leaven His disciples with unbelief, causing them to think lightly of the works of Christ. DA 407.3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유월절이 되면 집에서 누룩을 치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일종의 죄로 간주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막달라를 떠날 때 그들은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고, 빵 한 덩어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빵을 사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했던 그들은 종종 그분의 말씀에 대해 비슷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물고기 몇 마리와 보리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 그 엄숙한 경고에서 현세의 음식만을 언급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활한 추론이 제자들에게 불신앙을 심어 주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볍게 생각하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DA 407.3

"The leaven placed in the meal works imperceptibly, changing the whole mass to its own nature. So if hypocrisy is allowed to exist in the heart, it permeates the character and the life. A striking example of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Christ had already rebuked in denouncing the practice of "Corban," by which a neglect of filial duty was concealed under a pretense of liberality to the temple. The scribes and Pharisees were insinuating deceptive principles. They concealed the real tendency of their doctrines, and improved every occasion to instill them artfully into the minds of their hearers. These false principles, when once accepted, worked like leaven in the meal, permeating and transforming the character. It was this deceptive teaching that made it so hard for the people to receive the words of Christ. DA 408.3

"음식에 넣은 누룩은 눈에 띄지 않게 작용하여 전체 덩어리를 그 자체의 본성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위선이 마음에 존재하도록 허용되면 위선은 인격과 삶에 스며듭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전에 대한 자유를 가장하여 효도를 소홀히하는 "코반"의 관행을 비난하면서 꾸짖은 선승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의 진정한 경향을 숨기고 청중들의 마음에 교묘하게 주입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이자면 음식에 누룩처럼 작용하여 인격에 스며들어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DA 408.3

"The same influences are working today through those who try to explain the law of God in such a way as to make it conform to their practices. This class do not attack the law openly, but put forward speculative theories that undermine its principles. They explain it so as to destroy its force." DA 408.4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관행에 부합하도록 설명하려는 사람들을 통해 동일한 영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는 율법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 원칙을 훼손하는 사변적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힘을 파괴하기 위해 율법을 설명합니다." DA 408.4

8월 9일 금요일

Further Thought
더 깊은 연구를 위해

"Among the followers of our Lord today, as of old, how widespread is this subtle, deceptive sin! How often our service to Christ, our communion with one another, is marred by the secret desire to exalt self! How ready the thought of self-gratulation, and the longing for human approval! It is the love of self, the desire for an easier way than God has appointed that leads to the substitution of human theories and traditions for the divine precepts. To His own disciples the warning words of Christ are spoken, "Take heed and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DA 409.2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옛니 지금이나 이 미묘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섬김과 서로의 친교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에 의해 손상되는가! 자기 칭찬에 대한 생각과 인간의 승인에 대한 갈망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기 사랑,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쉬운 길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이론과 전통을 신성한 교훈으로 대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DA 409.2

"The religion of Christ is sincerity itself. Zeal for God's glory is the motive implanted by the Holy Spirit; and only the effectual working of the Spirit can implant this motive. Only the power of God can banish self-seeking and hypocrisy. This change is the sign of His working. When the faith we accept destroys selfishness and pretense, when it leads us to seek God's glory and not our own, we may know that it is of the right order. "Father, glorify Thy name" (John 12:28), was the keynote of Christ's life, and if we follow Him, this will be the keynote of our life. He commands us to "walk, even as He walked;" and "hereby we do know that we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ments." 1 John 2:6, 3." DA 409.3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은 성령께서 심어주신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만이 이 동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자기 추구와 위선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분의 역사하심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기심과 가식을 파괴할 때,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이끌 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질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2:28)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조였으며,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기조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걸으신 것 같이 걸으라"고 명령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6, 3." DA 409.3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